



DDA 농업협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
●
● WTO의 각 회원국들이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10월말 이전에 주요쟁점을 합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간 미국과 EU는 협상을 주도해 왔으나 각국의 의견차로 선불리 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국이 관세감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을 제안해 냄으로써 협상타결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제6차 WTO 각료회의는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어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 협상과 '서비스분야' 협상이 타결되는 정치적 입지가 크다. 때문에 각 회원국들은 더욱더 농업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호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과 그룹별로 활발해지고 있는 주요일정과 각국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폈다.

1. 가속화되는 농업협상

지난 7월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내오지 못하고 한달간 휴가기간에 들어갔던 WTO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9월이 시작되자마자 합의점 찾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휴가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농업협상회의(9.13~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 미국·EU 양자회담 23일 주요 4개국 각료급회담 등 10여개의 일정이 잡히는 등 9월과 10월에 주요국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첫 회의에서 펠코너 신임의장은 홍콩각료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세감축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향후 항상 대기(on-call) 상태로 있어 줄 것을 당부했다.

<9~10월 DDA 협상 관련 주요 일정>

일시	장소	회의 내용	비고
9월 13~15일	제네바	농업협상 회의	한국 참가
9월 22일	파리	미국·EU 양자 회동	
9월 23일 오전	파리	주요 4개국 각료급 회동(QUAD: 미국, EU, 브라질, 인도)	
9월 23일 오후	파리	주요 5개국 고위급 회동(FIPs: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9월 24일	파리	주요 5개국+5개국 고위급 회동	
9월 29~30일	제네바	일본 주관 주요국 회의	한국 미초청
10월 2~3일	루제른	농산물수입국그룹(G10) 연찬회	한국 참가
10월 4일	제네바	농업협상 회의	한국 참가
10월 10일	쾰리히	미국 주관 14개국 각료급 회동	
10월 11일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미정)	한국 참가
10월 17일	제네바	농업협상 주간	한국 참가
10월 19~20일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	한국 참가

2. 최근 회동, 어떤 얘기가 오갔나?

1) 농업협상 회의(9월 13~15일)

-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신임 농업협상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회의
- 회원국 전체회의, 의장과 주요국·그룹간, 주요국·그룹 상호간 협의가 추진

국가	주요 내용
한국	※ 팰코너 의장과 사전 면담 추진(13일) - 관세상한 거부,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 신축성 필요 입장 전달
캐나다	- 단순선형감축공식이 채택될 경우 관세상한 도입
G20(중국, 브라질 등)	- 관세상한 도입 주장 - 관세감축공식 신축성 인정 곤란
미국	-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강조
EU	- 관세감축폭 등 신중하게 접근 표명

2) 미국·EU 양자 회동(9월 22일)

- 양자는 획기적인 협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으나, 관세감축폭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논의함
- 미국은 관세감축공식에 융통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민감품목 신축성을 제약할 수도 있음을 밝힘
- EU는 수출보조 철폐 시점을 품목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국을 압박

주요쟁점	미국	EU
관세상한	도입	긍정적 입장
관세감축	최상위 고관세 구간 90% 감축	신축성 주장
민감품목	최소화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연계해 신축성 주장
블루박스	새로운 블루박스 인정	새로운 블루박스 강화(제한)
식량원조	규율 완화	규율 강화

3) 주요 4개국 각료급 회동(9월 23일)

-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4개국(QUAD) 회동임
-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관세상한 등에 대해 논의함
- EU와 미국이 제시한 입장과 수치는 현재로서도 우리에게서 큰 부담이 되는 수준임
-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에서는 미국과 EU가 관세감축공식을 스위스공식을 주장, 인도와 브라

주요쟁점	미국	EU	브라질	인도
관세상한	도입	신축성	도입	도입
관세감축	신축성 반대	신축성	신축성 반대	긍정적 입장
블루박스	새로운 박스 도입	제한	제한	제한

질은 반대. NAMA협상 진전을 위해서 농업협상 진전 필요성 강조

○ 서비스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과 인도가 주도하여 핵심그룹(Core Group)을 만들기로 함

< 현재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국 입장 >

구분	주요국 입장			
	EU	미국	G20(수출국)	G10(수입국)
구간 수, 경계(%)	4개 (30-60-90) (20-50-80)	4개 (20-40-60)	선진국-5개 개도국-4개	3개 (선진국 기준)
최상위 구간 경계	80~90%	60%	선진국-80% 개도국-130%	-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pivot + (±5~10% 신축성)	progressive cut (단순선형도 가능)	단순선형 (liner cut)	관세감축공식내 신축성
구간대별 감축률(%)	1안:20-30-40-50 2안:30-40-50-60	60-70-80-90		
관세상한	100%(선진국)	75%	선진국-100% 개도국-150%	반대
민감품목 수	관세감축 공식내 신축 성 정도에 따라 다른 수	전체 세 번의 1%	매우 제한된 수	국별로 다른 수
민감품목 대우	관세감축 및 TRQ 증량 최소화	관세감축과 동등한 수준의 TRQ 증량	-	관세감축 및 TRQ 증량 최소화

3. 향후 협상 전망

미국과 EU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타국과도 각료급 협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미국과 EU 양국 모두 관세감축폭 등 구체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양국 모두 상호 양보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홍콩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공유하고 있고 신임 농업협상 의장의 의지도 높아 주요국간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12월 13일~18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에 합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부원칙의 주요 요소만 합의를 할 것이냐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